

2022.03.24



Daishin Research Center

Daishin Research

Morning Meeting Brief

2022.03.24



섹터	제목	작성자
[산업 및 종목 분석]		
은행업	[1Q22 Preview] 실적은 무패행진의 연속, 그리고 은행업 환경의 변화	박혜진
삼성중공업	[Corporate Day 후기] 러시아 영향만 넘기면 회복 본격화	이동헌
두산밥캣	[Corporate Day 후기] 안전한 북미시장	이동헌
효성중공업	[Corporate Day 후기] 풀려가는 숙제들	이동헌

은행업

실적은 무패행진의 연속,
그리고 은행업 환경의 변화

박혜진 hyejin.park@daishin.com

투자의견

Overweight

비중확대, 유지

커버리지 4사 1분기 순이익 4.17조원, 컨센서스 거의 부합 전망

- 커버리지 은행 기준 NIM, 전 분기 대비 +2~3bp 개선될 전망. 여신 성장은 예상보다 둔화되는 양상. 금리 상승 및 연초 각종 성과급 지급 등으로 가계 신용대출이 크게 감소한 영향. 금융당국 지속적으로 건전성 강화주문. 국내 은행이 2021년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으로 쌓은 금액은 총 37.6조원으로 부실채권 11.8조원의 3배를 상회. 대손비용이 크게 증가할 유인은 크지 않으나 올해도 보수적으로 충당금 적립을 이행할 가능성이 큼

비이자 이익이 관건, 수수료 이익 양호하나 유가증권 및 매평익이 우려

- 증권의 트레이딩 수익을 포함한 유가증권 관련 매매평가익이 지수 및 금리 변동성 확대에 녹록치 않음. 손해보험사들은 자보손해율이 2월까지 상당히 안정적으로 실적 호조 예상되나 생명보험은 이익 감소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 또한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인하 영향으로 카드사 이익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

윤석열 당선인 공약 관련 영향은 대출규제 완화, 공시 강화 예상

- 궁극적으로 대출 규제는 완화되는 방향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됨.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 확대 관련 공약은 은행의 예대마진을 축소시키는 것보다 성실 공시에 더 주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

신한지주에 이어 KB금융도 분기 배당 가능성 점증

- 지난 3월 16일 KB금융은 분기 배당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를 공시. 분기 배당 최종결정은 4월 22일 이사회에서 결의할 것이나 이 같은 행위는 주주 환원에 대한 경영진의 의지를 보여준 셈. 분기 배당은 이제 커다란 흐름이 되었으며 금융지주 전반에 걸쳐 이 같은 변화는 확산될 것으로 전망

삼성중공업 (010140)

이동현 dongheon.lee@daishin.com

투자이견

Marketperform

시장수익률, 유지

6개월
목표주가

5,200

하향

현재주가
(22.03.23)

5,690

러시아 영향만 넘기면 회복 본격화

Corporate Day 주요 발언

- [2021년] 수주 91억불 목표에 121억불 초과 달성. 컨선 55억불(44척), LNG선 44억불(22척), 탱커선 23억불(14척). 매출액 6.6조원, 영업이익 -1,312억원. 강 재가 총당금 -5,270억원, 드릴십 평가손 -2,600억원 반영
- [2022년] 수주목표 88억불(조선 73억불/해양 15억불), 매출액 7조원 목표(계열 사 평택공장 공사 5천억원). 2020년 수주 부진으로 완만한 회복 [수주잔고] 매출기준 19.7조원, 매출대비 2.5년치 물량. 23~25년 본격 성장 [러시아] 수주는 2021년 셔틀탱커, LNG선 25억불, 2020년 LNG선 10척, 2019년 LNG선 5척. 이중 19년 수주 5척에서 2척은 기인도, 3척이 연초 인도 예정. 2022년 약 1조원 매출 규모. 공정 진행보다 선수금 수취 비율 높음. 2021년 계약은 설계 단계라 필요 시 해지, 추가 수주로 전환도 가능

주요 Q&A

- [원자재] 2021년 강재가 인상분을 지속 반영. 2022년 영향은 크지 않을 것. 21년 7월 수주부터는 강재가 상승을 선가에 충분히 반영 [인력숙련도] 20년 초 에버그린 컨선 20척 수주, 반복건조 효과 본격화. 23~25년 숙련도가 본격적으로 올라올 것. 외주비는 조선사 전반으로 상승 [드릴십] 5척 중 1척 매각, 1척 매입옵션 포함한 용선. 유가 상승으로 매각 가능 성 높아짐. 척당 2.5억불 내외면 추가 상각 없음. 총당금 환입에는 보수적

Comment, 안전한 북미시장

- 잔고 증가로 외형 회복은 당연한 수순. 러시아 영향만 넘기면 2023년부터 시작

두산밥캣 (241560)

이동현 dongheon.lee@daishin.com

투자이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55,000

유지

현재주가
(22.03.23)

40,400

안전한 북미시장

Corporate Day 주요 발언

- [2021년] 북미 소형 건설장비 수요 호조 지속, 공급망 이슈로 인한 생산 부족 대비로는 최고의 실적. 공급망 차질 영향을 적극적 판가 인상으로 영향 최소화. 7월 인수한 산업차량은 해상운임 급등으로 낮은 마진을 보임 [판가] 연초 미주 10%, 유럽 5~6% 인상, 시차를 두고 반영.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효과가 더 클 것. 시장수요가 좋고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상요인이 충분 [1Q22] 기존 재고에 판가 인상분이 반영되며 기대보다 괜찮을 것 [주가] 이익 규모나 브랜드파워, 해외 비교업체 대비 저평가. 배당도 포인트

주요 Q&A

- [미주/유럽] 미주는 계획 대비 호조, 유럽은 일부 우크라이나 영향 [미주 금리인상] 현재 영향 없고 연간 영향 미미, 2022년은 인프라 투자가 상쇄 [미국 인프라] 가이던스에는 미반영. 하반기 기대감이 일부 수요 자극은 가능 [산업차량] 인수때보다 마진율 소폭 개선. 밥캣 브랜드 사용은 시간 두고 논의 [포터블파워, PP] 유가 회복으로 수요 증가 예상하나 시차가 있음. 이동식 발전기 위주였으나 고정식도 출시하며 시장 진출 준비 [부품차질] 반도체, 허브 컨트롤, 펌프, 유압부품 등 수급 문제. 우크라이나 이슈로 다소 장기화 예상. 나머지 제품을 조립 후 부품 수급에 따른 출고에 집중

Comment, 안전한 북미시장

- 산업재 전반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유럽의 일시적 수요 감소, 원가 상승 영향을 맞고 있는데 반해 동사는 1Q22 드물게 양호한 실적 흐름을 보일 전망, 북미 주택시장은 코로나로 인한 공정 차질로 인한 지연수요, 엔데믹에도 구조적 증가세. 금리 인상 영향보다 2022년의 성장을 주목할 때

효성중공업 (298040)

이동현 dongheon.lee@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83,000

유지

현재주가
(22.03.23)

61,600

풀려가는 숙제들

Corporate Day 주요 발언

- [2021년] 어려운 여건에서도 단기와 중장기 성장을 위한 신사업 투자 지속. 매 출은 중공업 1.8조원(전력기기 1.34조원), 건설 1.3조원으로 소폭 확대. 수주는 중공업 1.8조원, 건설 1.3조원, 진흥기업 0.4조원 [2022년] 매 출은 전년비 20% 내외 증가 전망. 수주도 매출 증가를 따라갈 것. 진흥기업은 재건축 정비사업 허가 완화를 기대 [4Q21] 수주 증가. 중공업 수주 5,900억원(전력기기 4,400억원) 중에 수출이 2,600억원. 유럽과 중동 확대, 차단기와 ESS 증가

주요 Q&A

- [유가, 러시아] 유가 상승은 중동 친환경 주거지 발주 증가로 연결. 변압기 원가는 상승. 전반적으로 긍정적. 러시아는 직접적인 영향 없음. 유럽 간접 영향 [정권교체] 한전 적자폭 확대, 전기료 인상 지연에도 신재생 접속대기물량 증가. 송변전시장 발주는 변동 없음. 전기료 현실화 필요. 원전 재개는 긍정적 [원전] 대용량 제품이 들어 규모가 커짐. 원전 한 기당 1천억원 내외 규모 [수소] 2023년 액화수소 판매 목표. 직영 충전소 연내 3기 발주 예정 [풍력] SD Wind와 터빈 합작. 규모증가 8.5MW에서 10MW급, 공장 200MW에서 400MW 계획 상향.

KS인증을 진행 중. 200~300억원의 투자 소요

Comment, 안전한 북미시장

- 산업재 전반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유럽의 일시적 수요 감소, 원가 상승 영향을 맞고 있는데 반해 동사는 1Q22 드물게 양호한 실적 흐름을 보일 전망, 북미 주택시장은 코로나로 인한 공정 차질로 인한 지연수요, 엔데믹에도 구조적 증가세. 금리 인상 영향보다 2022년의 성장을 주목할 때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